

13장 제국시대와 민족국가: 삶 권력 I

(1교시)

※ 학습목표

- ① 제국이라는 새로운 체제의 관점에서 금융적 축적체제를 재해석.
→ 경제적인 측면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에서 논의
- ③ 주권의 측면에서 지배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본다.

▲ 제국 시대의 주권

주권: 하나가 지배하는 상태를 지칭함. 주권은 **Autonomy-자기지배와 상당한 유사성**을 지님.
민족국가의 주권은 다수의 다른 민족국가가 침해할 수 없는 자율을 가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그럼에도 주권은 다수에 대한 일자(一者)의 지배를 의미하는 측면이 강하고, **Autonomy는 모든 사람에 의한, 모든 사람을 위한 다수의 지배**라는 의미가 강함.

민주주의, 다시 말해 Democracy(Demo-다수 + cracy-지배)라는 것도 대의제로서 모든 사람을 위한 **다수의 지배**라는 함의를 가진다.

▲ 현대 사회의 주권

민주주의

→ 다수의 지배인 듯 보이나, 선거를 기점으로 하여 그것의 효과나 타당성의 부분에서 본다면, 일자의 지배가 나타난다.

선거란 사전적으로는 선택하여 정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택과 정립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직면하고 통과하는 과정이다.

모든 선택들에는 자유, 창조의 측면과 강제, 제한의 측면이 있다.

일반적인 의미의 선거선택은 그 중에서도 **강제의 측면이 매우 강한** 선택행위이다.

의사당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여러 정당들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제당할 때 우리는 오히려 일자의 권력에 종속된다. 즉, 자율은 주권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본래 주권(sov^{er}eignty)이란 말은 군주권이라는 말로 사용된 것임. 집단, 당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



안토니오 그람시(1891-1937) "시민사회내의 진지전을 통해 현대 군주는

형성된다."

▲ **군주권의 집합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군주권의 집합화 즉 **현대 주권의 이행 요소**는 **생산, 소유, 자본형태**의 세 가지이다.

(2교시)

▲ 현대 주권 이행요소의 특성들.

① 생산 : 비물질노동

Knowledge

Information(상품화 된 지식)

Communication

Affection

→ 인간의 지식의 상품화

→ 정보화 시대의 교류를 통하여 민족과 민족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

민족국가의 위기가 도래함.

② 소유 : 소유와 경영. 노동의 유연화

전통적 의미의 지배와 착취 방식을 고수할 수 없게 됨.

서구의 생각에서 본다면, 자국 내의 비보장 노동자와 주류 노동자들을 착취체계에 얹어매기

위한 방법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소유의 유연화, 경영의 유연화**

→ 생산과 소유, 경영의 과정 자체에 노동자들을 참여시킴.

또한 노동자 자신이 소유자로 변하기 시작. 금융자본의 주된 구성이 자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노동자 자신이 된 현실.

이로 인해 노동자/소유자라는 이분법적 도식이 깨지고 말았음.

예> 노동자들의 주식투자, 연기금의 투자...

③ 자본형태

자유주의적 단계 (산업자본의 형태)

→ 케인즈주의(국가자본 단계) → **금융화**를 통한 **초국가적 자본의 형태**로 변화.

신자유주의하에서 금융자본은 국경을 넘어서 이동함. **개별자본**으로서의 국가는 **방해로 작용**

하는 지경에 이르렀음.

국가가 방해물이 되면 자본은 곧바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됨.

1929년의 대공황위기는 과잉생산의 위기,

68년 이후의 자본주의 위기는 부채로 인한 위기임. 제3세계에 투자한 돈들이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이자가 지속적으로 나오면 문제가 없음. 하지만 이 과정이 원활하지 못할 때 이자수익을 내지 못하여 부채가 증가되는 위기가 생기게 됨. 즉 최근의 외환위기는 금융자본기구에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위기임.

예> 1982년 멕시코, 1997년 한국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MF는 금융자본의 위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구이다.

→ 이 세 요소들의 변화과정을 보면 민족국가의 위기를 잘 알 수 있음.

IMF의 영향 아래 있는 민족국가는 민족공동체의 주권만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아님. 그들의 주권은 금융자본에 종속되어 있음.